

19세기 바디스 패턴에 관한 연구

- 1890년대 여성복의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를 중심으로 -

The Bodice Pattern Design of the 19th Century

- Focused on the Four-piece Bodice of the Ladies' Costume of the 1890's -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문명옥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ong-Eui University

Professor : Myeng-Ok Moon

목 차

- I. 서 언
- II. 연구방법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IV. 결언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produce the four-piece bodice pattern of a ladies' costume of the 1890's for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with a standard body type and average size. Eighteen four-piece bodice patterns of the ladies' costume of the 1890's were collected and drawn to actual size. The front width of the bodice was wider than the back width. The front bust line of the bodice was wider than the sum of the back bust line, the side back bust line and the under-arm gore bust line. The front waist line of the bodice was wider than the sum of the back waist line, the side back waist line and the under-arm gore waist line. The angles of the two waist darts of the bodice were very big but the legs of the dart were too short. The center front line of the bodice was oblique and curved. The angle of the back shoulder line of the bodice was bigger than the angle of front shoulder line. The shoulder seam line of the bodice was not placed on the top of the shoulder but behind the shoulder. The pattern characteristics of the bodice created a woman's silhouette that emphasized the volume of the bust, a chicken breast and a slim waist. The study pattern which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piece bodice of the 1890's was designed like <Fig. 4> for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who have a standard body type and an average size through modificat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wo dressing occasions. The study pattern was evaluated to have the silhouette of the 1890's and to fit Korean women.

주제어(Key Words):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four-piece bodice), 표준체형(standard body type), 연구패턴(study pattern), 관능검사(sensory test), 새가슴(chicken breast)

I. 서 언

1890년은 현대의상 모드가 확립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때는 복식에 관한 온갖 수법이 세련되었으며 1892년경부터 1907년경 사이에 의복의 구성기술은 현저하게 발전되어 하나의 정점에 달하였으며 손바느질 및 재봉틀에 의한 봉제기술은 원형제도법의 발전과 함께 그 합리성과 정밀함이 고도한 것으로 향상되었다.(정홍숙, 1988: 279) 이 시기 여성복의 바디스는 대체로 몸에 꼭 맞았으며(신상옥, 1991: 303), 꼭 끼는 상체와 허리, 부푼 소매, 벨 모양의 스커트를 입은 모습은 1890년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실루엣이었고(정홍숙, 1988: 281), 특히 가슴은 비둘기 가슴처럼 나오고 허리는 가늘게 조이고 hips는 나오게 하여 옆에서 본 실루엣이 S자 모양이 되게 하였다.(신상옥, 1991: 304) 1890년대 여성복의 패턴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들(Janet Arnold, 1964, 1966; Kristian Harris, 1994, 1999; Margot H. H. & Peter A. B., 1967; Norah Waugh, 1968)을 살펴보면 바디스 패턴의 앞판은 다아트가 있는 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뒤판은 1장에서 4장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1890년대 여성 실루엣의 특징인 가슴의 볼륨과 가는 허리를 강조하고 있다.

시대 의상에 대한 연구들이 단순히 그 형태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대 의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문명옥, 2006)에서는 1890년대 여성 상의의 강조점이었던 소매 중에서 겹소매와 안소매의 두 장으로 재단된 소매에 대하여 패턴의 특징을 분석하여 현대 여성을 위한 소매 패턴을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현대 의상에서의 활용을 위한 시대 의상 패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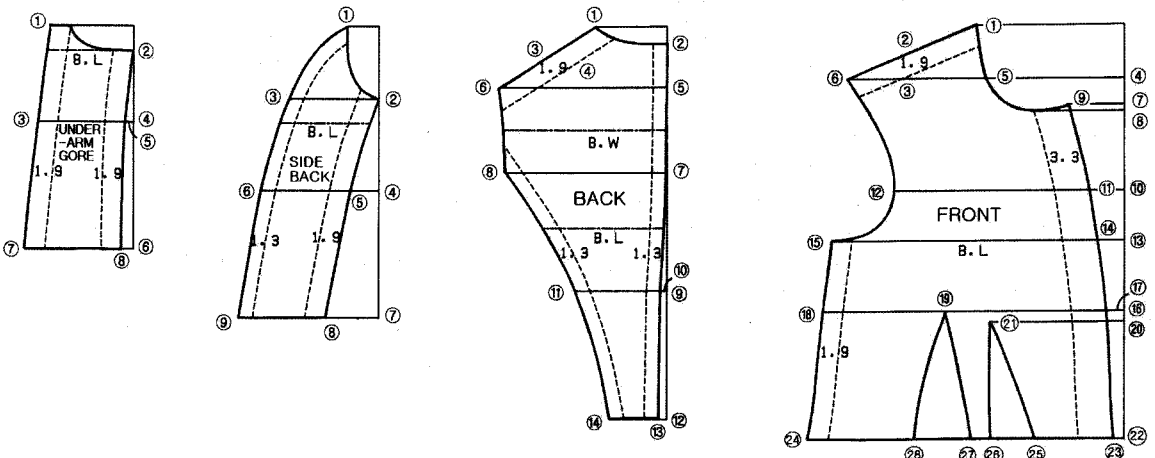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1890년대 여성복을 중심으로 바디스 패턴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 패턴의 구성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대 여성을 위한 시대 의상을 제작하기 위한 패턴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890년대 여성복 중에서 4장으로 재단되는 바디스 패턴을 수집하여 실제 치수로 제도하고 패턴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20대 한국 표준 체형 여성의 평균치수에 적합하고 1890년대 여성복의 특징을 살린 바디스 패턴을 설계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1890년대 여성복의 패턴을 실제 치수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 제도법과 치수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참고문헌들(Janet Arnold, 1964, 1966; Kristian Harris, 1994, 1999; Margot H. H. & Peter A. B., 1967; Norah Waugh, 1968)에서 실루엣이 피트하고 바디스 부분이 front, back, side back, underarm gore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복 상의 패턴 18점을 선정하였다. 1890년대 여성복의 바디스를 구성하고 있는 패턴의 개수는 2~5장으로 다양하나 패턴을 그릴 수 있도록 치수가 제시되어 있는 참고문헌 중에는 앞판이 1장, 뒤판이 3장 총 4장으로 구성된 바디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를 선정하였다.



(그림 1) 패턴 치수 측정

(---선은 봉제선, 시점 단위:cm)

2.2. 패턴 분석

2.2.1. 패턴 치수 측정

선정한 바디스 패턴들을 문헌들(Janet Arnold, 1964, 1966; Kristian Harris, 1994, 1999; Margot & Peter, 1967; Norah Waugh, 1968)에 제시되어져 있는 치수 그대로 실제 크기로 제도하였으며, 이들 바디스 패턴에는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시점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림 1>과 같이 제도 시 필요한 치수들로서 front에서 28개, back에서 14개, side back에서 9개, underarm gore에서 8개를 각각 측정하였다.

2.2.2. 자료 분석

패턴에서 측정한 치수 자료에 대하여 SA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치수의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2.3. 바디스 패턴 설계

2.3.1. 실험패턴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형태 분석과 바디스 패턴에서 측정된 치수의 평균치로 제도한 패턴을 바탕으로 20대 표준 체형 여성의 평균치수(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2004: 15-20)를 적용하여 실험패턴을 설계하였다.

실험 패턴은 머슬린으로 제작하였으며 2차례의 착의 실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정하여 수정하였다. 착의 실험 시의 피험자는 20대 표준 체형 여성의 평균치수인 키 159.7cm, 몸무게 52.9kg, 젖가슴둘레 82.1cm, 허리둘레 67.3cm, 등길이 38.1cm, 어깨길이 12.7cm 각각 편차 범위 내의 피험자 3명으로 하였다.

2.3.2. 연구패턴

연구패턴은 실험패턴에 대한 1, 2차 착의실험을 거쳐 수정과 보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바디스의 전체적인 형태가 1890년대 여성복의 바디스 실루엣과 패턴의 특징을 지니면서 20대 표준 체형의 평균치수에 해당하는 여성에게 적합하도록 연구패턴을 완성하였다.

2.3.3. 착의평가

평가자는 의복구성학을 전공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자들이 1890년대 여성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1, 2차 실험패턴 착의 실험 시의 피험자들로서 20대 표준 체형 여성의 평균치수에 해당하는 여성 3명이다.

평가문항은 <표 1>과 같이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 척도는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평가항목

평가항목
1. 목부위는 잘 맞는가?
2. 어깨부위는 잘 맞는가?
3. 앞몸은 잘 맞는가?
4. 뒤몸은 잘 맞는가?
5. 진동둘레 부위는 편안한가?
6. 다트의 위치와 크기가 가슴의 볼륨을 나타내기에 적당한가?
7. 허리부위는 잘 맞는가?
8. 뒤판 절개선의 위치와 기울기는 적합한가?
9. 가슴부위는 잘 맞는가?
10. 전체적인 형태가 1890년대 여성복의 바디스와 유사한가?

비교패턴으로는 이형숙식 바디스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앞판에는 연구패턴과 같게 두 개의 다이트를 넣고 뒤판은 연구패턴의 뒤판과 같은 비율로 3장으로 절개하여 만든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하여 평가항목 별로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전체평균점수를 구하고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크롬바알파값을 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3.1. 바디스 패턴 분석

<표 2>은 바디스 패턴에서 측정된 59개 치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각 항목들의 평균값으로 제도한 바디스 패턴이다. 1890년대 여성복의 바디스 패턴을 현대 여성의 바디스 패턴과 비교해 보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이형숙식(이형숙, 남윤자, 2001: 84-86), 허동진식(허동진, 1999: 278-280)의 2가지 패턴을 중심



<그림 2> 1890년대 여성복 착용 모습 (Harris, 1994: 35)

〈표 2〉 패턴 치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cm)

측정부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측정부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front	1	13.9	2.45	10.8	19.7	back	1	6.7	.37	5.7	7.2
	2	13.0	.77	11.6	14.3		2	1.6	.31	1.3	1.9
	3	12.1	.61	11.0	13.3		3	10.7	.46	9.8	11.5
	4	4.9	.91	3.8	6.4		4	12.9	.46	12.0	13.4
	5	13.0	2.09	10.2	17.5		5	5.6	.50	4.4	6.4
	6	26.1	2.13	23.2	31.1		6	15.7	.59	14.3	16.5
	7	7.3	.67	5.7	8.3		7	13.4	.97	11.4	15.2
	8	7.9	.50	7.0	8.9		8	15.1	.39	14.3	16.1
	9	5.3	2.14	2.5	11.4		9	24.4	1.50	22.0	26.6
	10	15.2	.91	14.0	17.1		10	.6	.23	.2	1.2
	11	3.3	1.80	.9	8.5		11	8.6	1.02	6.4	10.2
	12	21.7	1.99	18.4	25.4		12	36.2	1.24	34.3	39.4
	13	19.9	.91	18.1	21.6		13	.8	.29	.6	1.6
	14	2.4	1.62	.3	7.0		14	5.3	.67	4.2	6.7
	15	27.6	2.18	13.7	19.1	side back	1	2.9	.90	1.3	5.1
	16	26.4	1.55	22.3	28.8		2	6.7	1.27	3.5	8.9
	17	1.7	1.35	0	5.7		3	8.4	.59	7.4	9.2
	18	28.4	2.60	23.3	32.5		4	15.1	1.88	11.4	18.4
	19	16.9	1.76	13.3	19.1		5	2.7	1.15	1.0	4.8
	20	27.4	1.47	23.5	29.2		6	11.0	1.08	9.4	12.8
	21	12.7	3.84	7.0	22.9		7	26.9	1.45	23.5	30.5
	22	38.2	1.52	36.2	40.6		8	5.0	1.88	1.9	7.0
	23	1.0	.73	0	3.2		9	13.1	1.75	10.2	15.2
	24	29.8	3.24	22.9	34.9	under -arm gore	1	7.8	.64	6.7	9.6
	25	8.4	1.42	5.7	11.4		2	2.3	.76	.6	3.5
	26	12.6	1.88	8.9	17.1		3	9.0	.59	8.2	10.2
	27	14.4	1.96	10.8	19.1		4	8.8	1.71	6.4	11.3
	28	19.9	2.83	14.6	26.0		5	.8	.57	.3	2.1
					6		20.6	1.48	18.4	24.1	
					7		10.2	1.0	8.9	12.0	
					8		1.1	.92	.3	3.8	

〈표 3〉 1890년대와 현대 여성의 바디스 패턴 치수 비교

(단위: cm, °)

항목	패턴	1890년대		이형숙식	허동진식	
등길이		33.3		38	38	
½ 가슴둘레선	½ 전체가슴둘레선	37.9		46	46	
	앞(½ 전체가슴둘레선에 대한 %)	20(52.8%)		22.5(48.9%)	23(50%)	
	뒤(½ 전체가슴둘레선에 대한 %)	back	17.9	8.4	23.5(51.1%)	23(50%)
		side back	(47.2%)	5.2		
underarm gore		4.3				
½ 앞품(½ 전체가슴둘레선에 대한 %)		13.8(36.4%)		16.3(35.4%)	16.7(36.3%)	
½ 뒤품(½ 전체가슴둘레선에 대한 %)		12.7(33.5%)		17.8(38.7%)	17.7(38.5%)	
½ 뒤품 - ½ 앞품		-1.1		1.5	1	
어깨각도	앞	22		23	18	
	뒤	32		20	19	
½ 허리둘레선	½ 전체허리둘레선	26.0		-	-	
	앞(½ 전체허리둘레선에 대한 %)	13.9(53.5%)		-	-	
	뒤(½ 전체허리둘레선에 대한 %)	back	12.1	1.9	-	-
		side back	(46.5%)	4.9		
underarm gore		5.3				

으로 패턴 치수를 측정하였으며 <그림 2>는 1890년대 여성 복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등길이에 해당하는 치수는 back12의 36.2cm에서 back2의 1.6cm와 목둘레선의 시접 1/2"를 뺀 33.3cm가 되며 20대 한국 여성 표준체형의 등길이가 평균 치수 38cm보다 약 4.7cm 정도 가 짧다.

평균값으로 제도한 1890년대 바디스 패턴 <그림 1>상에서 BACK의 세로 길이 5과 6사의 이등분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가로로 측정한 뒷품선은 시접 1" (진동쪽 시접 1/2", 뒷중심쪽 시접 1/2")를 뺀 12.7cm이며 1/2전체가슴둘레선에 비해 33.5%의 비율을 나타내며 현대 바디스들의 뒷품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앞품은 front12의 21.7cm에서 front11의 3.3cm와 앞여밈분의 시접 3.3cm 그리고 진동의 시접 1/2"를 뺀 13.8cm이며 1/2전체가슴둘레선에 비해 36.4%의 비율을 나타내며 현대 바디스들의 앞품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앞, 뒷품 차이에서 앞품이 뒷품보다 약 1.1cm 오히려 크며 이는 현대 바디스 패턴들의 뒷품이 앞품 보다 큰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으로 1890년대 의상 및 여성 자세의 특징인 등을 뒤로 젖히고 가슴을 내밀어 가슴의 볼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1/2가슴둘레선의 길이는 앞판은 front15의 27.6cm에서 front14의 2.4cm와 앞여밈분 3.3cm 그리고 옆선 시접 3/4"를 뺀 약 20.0cm이다. 뒤판을 이루는 3 조각들에서의 가슴둘레선 치수는 봉제선에서 앞판의 가슴둘레선과 만나는 underarm gore에서의 가슴둘레선의 위치를 찾고 underarm gore의 가슴둘레선과 만나는 side back에서의 가슴둘레선의 위치를 찾으며 side back에서의 가슴둘레선과 만나는 back에서의 가슴둘레선을 찾아서 측정하였다. back의 가슴둘레선은 8.4cm, side back의 가슴둘레선은 5.2cm, underarm gore의 가슴둘레선은 4.3cm으로 총 뒤판의 가슴둘레선은 17.9cm이다. 앞판의 가슴둘레선이 1/2전체가슴둘레선의 52.8%를 차지하여 뒤판에 비해 그 크기가 크고 현대의 바디스들이 앞, 뒤판이 같거나 뒤판이 큰 것과 상반된다. 앞판의 가슴둘레 크기를 뒤판 보다 더 크게 해 줌으로써 1890년대 의상의 특징인 가슴의 볼륨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평균 치수로 제도한 패턴에서 측정한 어깨 각도는 뒤판이 32°, 앞판이 22°로 뒤판의 어깨경사가 앞판 보다 훨씬 심하며 현대 바디스의 어깨각도와 비교해 보면 앞판은 큰 차이가 없으나 뒤판의 어깨각도는 그 경사각이 매우 크다. 또한 어깨의 봉제선은 어깨선 위에 있지 않고 어깨 뒤쪽으로 넘어가 있다.

허리둘레선의 길이는 앞판은 front24의 29.8cm에서 front23의 1.0cm와 앞여밈분 3.3cm와 시접 1.9cm 그리고 두 개의 허리다아트 5.5cm, 4.2cm를 뺀 13.9cm이며, 뒤판의 경우

back은 back14의 5.3cm에서 back13의 0.8cm와 시접 2.6cm를 뺀 1.9cm이고 side back은 side back9의 13.1cm에서 side back8의 5.0cm와 시접 3.2cm를 뺀 4.9cm이며 underarm gore는 underarm gore7의 10.2cm에서 underarm gore8의 1.1cm와 시접 3.8cm를 뺀 5.3cm이다. 이렇게 하여 구한 패턴의 1/2전체허리둘레선은 26.0cm가 되며, 이 중 앞판은 53.5%, 뒤판은 46.5%를 차지하고 다시 back은 7.3%, side back은 18.8%, underarm gore는 20.4%를 차지한다. 허리둘레선에서 앞, 뒤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슴둘레선에서 앞, 뒤판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슷하며 뒤판을 이루는 3조각의 패턴들을 살펴보면 back의 허리둘레선은 1/2전체허리둘레선의 7.3%를 차지하여 그 길이가 매우 작아서 뒤판 패턴 절개선의 경사를 매우 급하게 만들고 허리를 가늘게 보이도록 강조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1/2가슴둘레선과 1/2허리둘레선의 치수 차이는 11.9cm이며 허리선에서 가슴을 향해 들어간 두 다아트는 각각 5.5, 4.2cm로 그 크기가 매우 크고 또 크기에 비해 길이가 짧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가슴의 볼륨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현대 바디스 패턴의 앞중심선이 수직선인데 반해 1890년대 패턴의 앞중심선은 경사진 곡선으로 이 곡선은 옷을 착용 하였을 때 다아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가슴의 볼륨을 강조하는 효과를 더하는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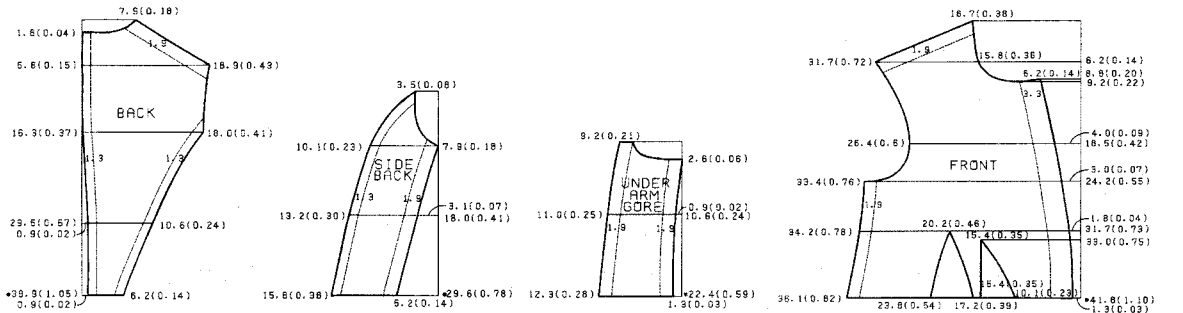
3.2. 바디스 패턴 설계

3.2.1. 실험 패턴

1890년대 여성복 바디스 패턴에서 측정한 치수들의 평균 치수로 그린 패턴을 토대로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을 반영하고 20대 한국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치수를 적용하여 1차 실험 패턴을 설계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바디스 패턴 제도법에서 기본 치수로 등길이와 젓가슴둘레를 사용할 뿐 아니라 1890년대 의복 설계 시에도 이들 치수들을 기본적으로 측정하였으므로(Kristian Harris, 1994: 1) 등길이와 젓가슴둘레를 실험 패턴의 기본 치수로 정하였다. 실제 치수로 제도한 1890년대 패턴 상에서 측정한 기본 치수인 등길이와 젓가슴둘레에 대한 1890년대 패턴 각 부위 치수들의 비율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 비율은 <그림 3>의 괄호에 나타낸 수치이다.

1890년대 바디스 패턴 설계 시 적용한 가슴둘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젓가슴둘레에 해당되는 가슴의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하고 2 $\frac{1}{2}$ "의 여유분을 주었으므로(Kristian Harris, 1994: 1)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젓가슴둘레 치수인 82.07cm에 여유분 2 $\frac{1}{2}$ "를 더한 치수인 88.4cm의 $\frac{1}{2}$ 젓가



(괄호 안은 젓가슴둘레에 대한 환산 비율이며, *표시항목은 등길이에 대한 환산 비율임, ---선은 봉제선, 단위:cm)

〈그림 3〉 1차 실험패턴

슴둘레 44cm를 이용하여 너비 항목들과 허리둘레선을 기준으로 위쪽 부위의 길이 치수들을 환산하였다.

1890년대 패턴 설계 시 사용한 등길이의 치수 측정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길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므로(Kristian Harris, 1994: 1)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인 38cm를 적용하였으며 허리선에 해당하는 길이 치수들은 이 등길이를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패턴 설계 시 필요한 치수들의 등길이, ½젓가슴둘레에 대한 비율을 구하여 제도한 1차 실험패턴의 제도법은 〈그림 3〉과 같다. 패턴의 배열은 〈그림 1〉의 1890년대 패턴 설계와는 다르게 현대 패턴 설계와 익숙하도록 봉제 라인이 서로 연결되도록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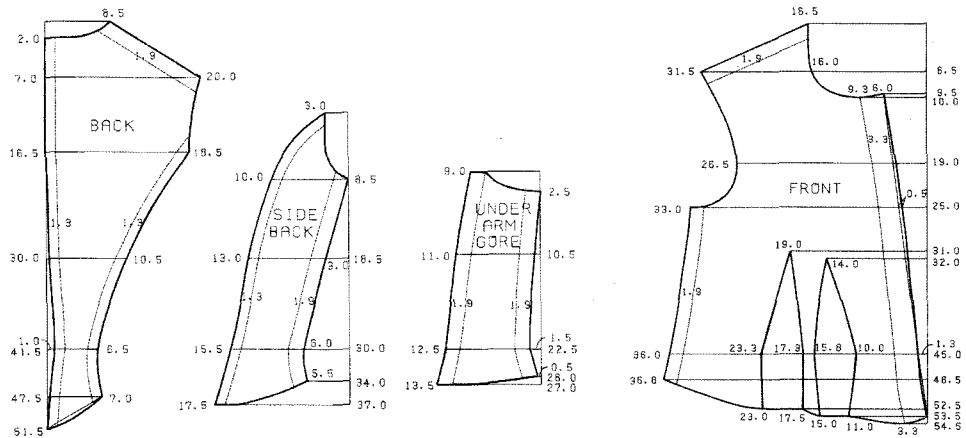
1차 실험 패턴으로 바디스를 제작하여 피험자에게 착용시켜 관찰한 결과, 어깨가 안정적으로 제 위치에 놓이지 못하고 목 부위도 조였으며 가슴둘레선의 위치도 이로 인하여 제 자리에 놓이지 못하였고 위로 올라갔다. 허리선의 위치 역시 제 위치에 놓이지 못하였으며 특히 앞판의 허리선은 심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허리에서 옷이 여며지지 않았다. 두 다이어트의 정점은 옆선 쪽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다이어트의 크기에 비해 길이가 매우 짧았으며 다이어트들이 가슴의 볼륨을 잘 나타내지 못하였다. 바디스를 이루는 4장의 조각들을 연결하는 선들이 완만하지 못하고 또 조각들을 연결하여 봉제할 때 완성선 치수가 서로 맞지 않았다.

허리선을 수정하기 위하여 뒤판의 back은 목둘레선의 시점분인 1.3cm분 만큼 내려주고 front의 허리선 위치는 부족한 앞길이를 2.3cm를 내려줌으로써 front의 옆선과 봉제되는 underarm gore의 길이도 맞출 수 있었다. 어깨선은 front와 back 모두 0.5cm 위로 평행하게 올려 주고 두 어깨선의 연결 시 치수가 같도록 하였다. 앞중심쪽 다이어트의 끝은 1cm 앞중심선쪽으로 이동하고 두 다이어트의 길이는 위로 각각 3cm씩 올려 다이어트의 길이가 길어지게 하였다. 각 조각들의 절개선들이 자연스러운 선을 이루고 봉제 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수정하여 2차 실험패턴을 설계하였다.

2차 실험패턴으로 제작한 바디스를 피험자에게 착용시킨 결과, 수정한 어깨선은 1890년대 상의의 어깨선과 같이 어깨 뒤쪽으로 넘어가 피험자의 견갑골 위에 안정적으로 놓여 졌으며 목 부위도 조이지 않고 목둘레선은 안정적이었다. 앞판의 허리선을 내린 결과 허리선의 위치가 앞, 뒤 모두 허리 제 위치에 놓여 졌으나 허리둘레선의 완성 치수가 67.4cm였다. 1890년대 패턴 설계 시 적용한 허리둘레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허리둘레에 해당되는 허리의 가장 가는 부분을 측정하고 ½~1"의 여유분을 주었으므로(Kristian Harris, 1994: 1)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 치수인 67.3cm에 여유분 1"를 더한 치수인 69.8cm 보다 여유분이 부족하였다. 수정한 앞판 다이어트의 위치는 젓꼭지점을 향해 두 다이어트가 조화를 이루어 잘 잡혔으나 여전히 가슴부위의 볼륨이 너무 강조되어 가슴 부분이 어색하였으며 이는 경사진 곡선의 앞중심선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볼륨으로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이 가슴의 볼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더라도 현대 여성의 체형에 맞추어 수정하여야 한다고 여겨졌다. 뒤판은 좁고 앞판은 넓은 것이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이나 2차 실험패턴의 뒤판은 활동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좁아서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뒤판을 약간 넓히는 것이 현대 여성의 체형에 잘 부합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바디스를 이루는 뒤판의 3장과 앞판의 1장 각 패턴 조각들의 연결 시 진동둘레선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였다.

2차 실험 패턴에서 앞중심선의 곡선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 앞목점과 앞허리점을 사선으로 연결하고 이 사선에서 0.5cm 정도로 곡선을 굴려 주어 앞중심선의 심한 곡률로 인한 가슴 부위의 어색한 볼륨은 정리하면서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의 특징인 앞중심선의 곡선은 살릴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부족한 뒷판을 0.5cm 늘려주고 이에 맞추어 각 피스들을 연결한 상태에서 진동둘레선과 목둘레선의 곡선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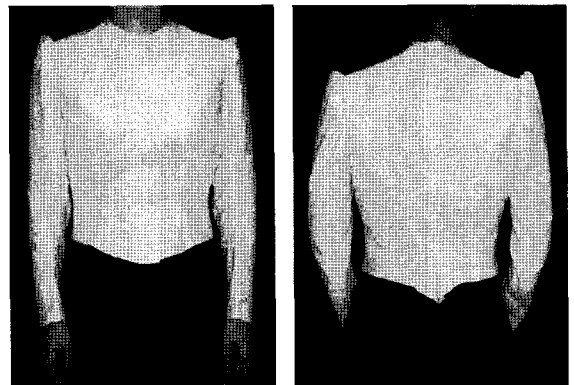
〈그림 4〉 연구패턴

(---봉계선, 단위: cm)

수정한 2차 실험패턴을 제도하기 간편하게 정리하고 1890년대 바디스 패턴 설계 시 곡선 그리는 방법(Kristian Harris, 1999: 82-83)을 참고하여 각 부위의 곡선을 정리하여 연구패턴으로 완성하였다.

3.2.2. 연구패턴

1, 2차 착의 실험을 통하여 수정, 보정하여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에 적합한 1890년대 여성복의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의 연구패턴은 〈그림 4〉와 같고, 〈그림 5〉은 이를 머슬린으로 제작하여 피험자가 착용한 모습이다. 1890년대 여성복 상의의 실루엣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허리선 아래 부분을 측정한 패턴의 치수들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제도



〈그림 5〉 연구패턴 착용모습

〈표 4〉 착의 평가 결과

평가항목	연구패턴		비교패턴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목부위는 잘 맞는가?	4.5	.52	2.2	.41	13.3***
2. 어깨부위는 잘 맞는가?	4.5	.52	3.2	.52	7.4***
3. 앞품은 잘 맞는가?	4.8	.56	3.1	.35	9.8***
4. 뒤품은 잘 맞는가?	4.3	.49	3.4	.51	5.1***
5. 진동돌레 부위는 편안한가?	4.3	.46	2.8	.41	9.2***
6. 다트의 위치와 크기가 가슴의 볼륨을 나타내기에 적당한가?	4.6	.51	2.5	.64	10.1***
7. 허리부위는 잘 맞는가?	4.4	.51	2.7	.49	9.5***
8. 뒤편 절개선의 위치와 기울기는 적합한가?	4.6	.51	3.4	.63	5.7***
9. 가슴부위는 잘 맞는가?	4.5	.52	2.5	.64	9.1***
10. 전체적인 형태가 1890년대 여성 상의의 바디스와 유사한가?	4.6	.52	2.7	.46	10.1***
전체평균	4.5		2.9		

*** p≤.001

시 필요한 기본 치수는 여유분 2 $\frac{1}{2}$ "를 포함한 $\frac{1}{2}$ 젓가슴둘레 44cm, 등길이 38cm이다.

본 연구패턴은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에 적합하도록 제작한 바디스 패턴이므로 착용자의 젓가슴둘레, 등길이, 허리둘레에 따라 패턴 절개 방식으로 패턴을 수정하여야 한다.

3.2.3. 착의 평가

최종 완성한 연구패턴에 대한 착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비교패턴으로는 이형숙식(이형숙, 남윤자, 2001: 84-86) 바디스 패턴을 이용하여 앞판에는 연구패턴과 같게 두 개의 다이어트를 넣고 뒤판은 연구패턴의 뒤판과 같은 비율로 3장으로 절개하여 만든 패턴을 사용하였다.

전체 평균 점수가 연구패턴은 4.5로 모든 평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본 연구 패턴은 그 전체적인 형태가 1890년대 여성 상의의 바디스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자들에 대한 신뢰도 검사는 크롬바알파값이 .9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890년대 여성 상의 중 바디스의 실루엣이 피트하고 4장으로 재단되는 패턴을 수집하여 실제 치수로 제도하고 그 패턴의 치수를 측정, 분석하여 바디스 패턴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한국 표준 체형 여성의 평균치수에 적합하고 1890년대 여성 상의의 바디스 특징을 나타내는 패턴을 설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디스 패턴 분석에서 1890년대 여성 상의의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 패턴은 앞폭이 뒤폭 보다 크며 가슴둘레선도 앞이 뒤 보다 크고 허리둘레선 역시 앞이 뒤보다 크다. 허리선에서 가슴을 향해 들어간 두 다이어트는 그 크기가 매우 크고 길이는 짧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가슴의 볼륨을 매우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앞중심선은 다이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사진 곡선이다. 어깨 각도는 뒤판이 앞판 보다 경사가 심하며 어깨 봉제선은 어깨 위에 있지 않고 어깨 뒤쪽으로 넘어가 있다. 이러한 패턴의 특징은 1890년대 의상 및 여성 자세의 특징인 등을 뒤로 젖히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가슴의 볼륨을 강조하는 효과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바디스 패턴 설계에서 1890년대 여성 상의 바디스 중 4장으로 재단되는 패턴에서 측정된 치수들의 평균 치수로 그린 패턴을 토대로 실험 패턴을 설계하고 2차에 걸친 착의 실험을 통하여 수정, 보정하여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에

적합하고 1890년대 여성 상의의 바디스 중 4장으로 재단된 패턴의 특징을 나타내는 연구패턴을 <그림 4>와 같이 완성하였다. 연구패턴은 모든 착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그 전체적인 형태가 1890년대 여성 상의의 4장으로 재단된 바디스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사용한 1890년대 여성 상의의 바디스 중 4장으로 재단된 패턴들은 시대적으로는 19세기 중에서도 1890년대에 한하며 디자인은 실루엣이 피트한 여성 상의에 제한하였으며 문헌 자료를 통하여 실물 크기로 제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치수가 제시되어져 있는 것들만 선정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평균치들의 편차가 커서 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재현 설계한 4장으로 재단된 여성 상의의 바디스 패턴은 19세기말의 복식을 한국 여성의 치수에 적합하게 재현할 때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패턴은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였으므로 착용자의 치수가 20대 표준체형 여성의 평균 치수와 다를 경우에는 등길이에 따라, 젓가슴둘레에 따라, 허리둘레에 따라 패턴 절개 방식으로 패턴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890년대 바디스 패턴은 2장부터 5장까지 다양하게 절개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다양한 바디스 패턴에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1890년대를 전후한 다른 연대들의 바디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바디스 패턴의 시대적인 변천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과거 의상의 현대 의상으로의 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5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문명옥(2006). 19세기 소매 패턴에 관한 연구-1890년대 여성 재킷의 두장 소매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9), 31-39.
-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2004). *표준체형 한국인 2004*. 신상옥(1991).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 이형숙, 남윤자(2001). *여성복구성*. 서울:교문사.
- 정홍숙(1988). *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 허동진(1999). *산업패턴실무전서*. 서울:미리내.

Janet Arnold(1964). *Patterns of Fashion 1*.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Janet Arnold(1966). *Patterns of Fashion 2*.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Kristian Harris(1994). *59 Authentic Turn-of-the-Century Fashion Patterns*.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Kristian Harris(1999). *Authentic Victorian Fashion Patterns*.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Margot H. H., & Peter A. B.(1967). *The Evolution of Fashion*. Hollywood: QSM.

Norah Waugh(1968). *The Cut of Women's Clothes 1600-1930*. New York: Routledge.

(2006년 11월 30일 접수, 2007년 1월 27일 채택)